



해답 1. 사도 바울을 도와 그의 선교 사역에 동역자로 섬겼다.

(롬 16:3-4)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중 사도 바울을 만나 생계를 함께하는 동업자를 넘어 사명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었다. 로마서 16:3-4에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라고 증언하며 그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들은 직접 설교하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전심전력으로 섬기며 사도의 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렸다. 마치 영화의 주연을 빛나게 하는 핵심 조연처럼,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정복이자 다스림이었다. 한국 교회사의 오윤선 장로가 주기철 목사의 보호막이 되었던, 이 부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목회자를 받쳐주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다.

✿ 적용 질문 1

1) 바울을 위해 ‘목까지 내놓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내가 섬기는 공동체나 지도자를 위해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 불편함이나 희생은 무엇인가?

해답 2. 온전한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하여 사역자로 세웠다.

(행 18:24-28)

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25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27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그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하나님께서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장차 초대교회의 위대한 종이 될 아볼로를 세우는 일에도 사용하셨다. 사도행전 18:24-28에 따르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했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이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었다. 이들은 아볼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지 않고 겸손히 데려다가 가르침으로써, 그가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유력한 사역자가 되도록 도왔다.

✿ 적용 질문 2

1) 우리 가정도 복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고 세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말씀 훈련 받기, 섬김, 겸손한 태도 등..)

2) 누군가 삶의 태도(온유, 희생, 사랑 등)가 ‘말없는 설교’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자.

해답 3.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리더로 섬겼다.

(롬 16:5)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와 로마 등 머무는 곳마다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삶을 살았다. 바울은 로마서 16:5에서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건물이 아닌 이 부부의 가정에 모이던 성도들의 공동체를 뜻한다.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것은 사생활의 포기나 음식 대접의 수고 등 삶의 질서를 복음에 내어드리는 실제적인 희생일 수 있다. 이들은 사도적 직분이나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자신이 가진 집과 재산, 삶의 공간을 최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렸다. 오늘날에도 수십 년간 묵묵히 집을 열고 성도들을 섬겨온 우리 교회 가정교회 목자와 목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

✿ 적용 질문 3

1) 우리 가정이 그저 ‘쉬는 공간’을 넘어 ‘사람을 살리고 세대를 세우는 통로’가 되기 위해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